
**MDI 농업분야 공동연구 조사
출장보고서**

[2016. 5. 1 ~ 5. 12]

-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 사업수행용역 -

2016. 6

KDI 한국개발연구원

1 출장 개요

- 출 장 명 :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 사업수행용역 농업분야
공동연구 출장
- 출장일정 : 2016년 5월 1일(일) ~ 5월 12일(목) (출입국일 포함)
- 출 장 지 : 미얀마 양곤, 네피도
- 출장내용 : 미얀마 신정부 출범이후 수립된 농업축산관개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향후 공동연구 주제 수요 발굴 및 이와 관련된
현지 답사
- 출장자(3명)

#	성 명	소속 및 직위	역할	출장기간
1	오세익	前 농촌경제연구원장	연구진	5.1~5.12
2	장성호	KDI School 교수	연구진	5.1~5.5
3	이근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사업관리	5.1~5.12

- 주요 활동사항
 - 향후 수행할 농업주제와 관련 예야와디, 편라인 지역을 조사하여 면적, 규모, 토양, 재배 가능작물, 관개가능 여부, Cropping Pattern등에 대해 파악
 - 미얀마 신 정부 출범이후 새로 수립된 농업축산관개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공동연구 수요주제 파악
 - 네피도 인근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방문하여 농업 및 금융연계 방안 모색

② 출장일정

일자	내용	비고
5.1(일)	● 인천(18:45) → 양곤(22:30)	오세익, 이근오 장성호
5.2(월)	● 10:30-12:00 KOICA 현지 사무소 방문 ● 14:30-18:00 KDI-KOICA-수출입은행-농어촌공사 합동회의	오세익, 이근오, 장성호
5.3(화)	● 07:00-08:00 양곤 → 네피도 ● 10:00-11:00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 12:00-13:00 KOICA 증장기 자문단 면담	오세익, 이근오 장성호
5.4(수)	● 09:30-10:30 새마을 시범마을 방문 ● 11:00-12:40 농업축산관개부 PS Htin Htut 면담 ● 15:00-16:00 미얀마 떼지공 마을 경지정리 사업 현장 방문 (별첨 1)	오세익, 이근오, 장성호
5.5(목)	● 13:30-14:25 네피도 → 양곤 ● 16:00-17:00 수출입은행-농어촌공사 면담 ● 18:00-20:00 MDI CEO Dr. Zaw Oo 면담	오세익 이근오
5.6(금)	● 09:00-18:00 편라잉강 농업종합개발 사업지구 현지답사(별첨 2)	오세익 이근오
5.7(토)	● 자료정리	오세익 이근오
5.8(일)	● 자료정리	이근오
5.9(월)	● 09:00-18:00 예야와디 유역 현지 답사(별첨 3)	오세익 이근오
5.10(화)	● 14:30-16:00 IRRI 신종수 소장 면담 ● 16:30-17:30 선진사료 이병하 대표 면담	오세익 이근오
5.11(수)	● 14:00-15:00 USAID Leslie Marbury 면담 ● 귀국 양곤(23:45) → 인천(07:35)(익일)	오세익 이근오
5.12(목)	● 인천 도착	

③ 세부 활동내역

① KOICA 부소장 면담

일 시: 2016.5.2(월), 10:30-12:00
장 소: KOICA 사무실 회의실
참석자: 오세익(前 농촌경제연구원장), 최공필(금융연구원), 문상원, 김혜원, 배도찬, Esther(이상 KOICA), 남상우, 김윤희, 김태영, 이근오(이상 KDI), 장성호(녹색지구)

<초청연수 기획 관련>

- MOPF 측 (Permanent Secretary, Tun Tun Naing) 에서는 5월 중에 KSP 행사가 있기 때문에, 6월 중 연수를 기획해줄 것을 요청함.
- (남상우 PM) 신정부 출범 후, MDI 신규 CEO 임명 이후, 초청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 MOPF 측에서는 6월~8월 말까지 공무원 연수가 실시됨에 따라 해외 초청연수 참가는, 8월 말 이후에 가능함. 참고로 KSP 예산으로 집행할 초청연수는 예산사용가능기한이 9월 중순까지임에 따라 9월 초에는 실시되어야 함.)

<KOICA-MDI 스콜라십 관련>

- KDIS 측에서 1차 심사 후, MOPF 측에 심사결과를 전달할 예정임.
- 작년에는 MNPED가 평가 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MNPED 측에서 컴플레인을 하였음. 금년에는 MOPF가 최종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결론적으로 2016 스콜라십 선발과정은 공개경쟁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최종 선발결과를 MOPF측에 전달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의됨. MOPF 측에 전달 후, 최종 정부승인은 1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됨.

<MDI 거버넌스 관련>

- MOPF PS에 따르면, MDI 관련 사항은 대통령실에서 총괄하고 있음.

- KOICA 측에서는 5월3째주 중에, MOPF 측 장관이 배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자 함.

<공동연구 관련>

- **(거버넌스)** 거버넌스 연구주제는 행정개혁 및 경제개발전략을 포함할 예정임.
- KOICA 측에서는 공동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서는 Dr. Zaw Oo보다는 정부 관계자와 협의해가며, KDI 측에서 연구주제를 정부 측에 먼저 제안해줄 것을 요청함.
- **(농업)** KOICA 측에서는 신정부 농업정책 (농업금융: 농협모델, 농기계/농자재 지원정책(supply chain), 농촌지도)을 MDI 측에서 big picture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 동시에 KOICA 및 EXIM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한 연구주제 발굴을 요청함.
- **(농업)** 비료지원사업은 단기간 내에 성과 (20-30% 생산량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 그러나 비료지원사업은 다수 공여기관 및 미얀마 정부 측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 따라, MDI 연구사업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2차5개년개발계획에는 비료생산 및 배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함. 따라서 농민들이 양질의 비료를 적기에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유의미한 주제일 수 있음.
- **(KOICA 문상원 부소장)** MDI 농업연구 주제로는 쌀 생산량 증대 이후, post harvest strategy를 제안하는 수준이 적당할 것임. 관개시설 개선 및 토양분석과 같은 구체적 작업은 세부사업으로 실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농업관개시설 개선 이전에, 관개시설개선 방향성을 농경제적 관점 및 거시적 관점(도시개발, 수출전략, 인구이동 등)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공동연구가 유용할 것임. 현재 농어촌공사와 농업관개부가 함께 추진 중인 ‘이야와디 델타 지역 관개시설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450만불)’은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없이 관개시설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음.
- **(금융)** 농업개발 및 스마트빌리지 설립사업과 연계하여 금융 선순환 모델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 MDI를 통해 기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화된 마이크로 파이낸싱 접근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음. 가령, 새마을운동 100개 시범마을과 연계해서 P2P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100개 마을은

이미 인구조사, 농가소득, 생산량 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동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후 사업개발 가능함.

② KDI-KOICA-수출입은행-농어촌공사 합동회의

일 시: 2016.5.2(월), 14:30-18:00

장 소: 양곤 노보텔 호텔

참석자: 오세익(前 농촌경제연구원장), 오영인(한국농어촌공사), 손승호(한국수
출입은행), 최공필(금융연구원), 문상원, 김혜원, 배도찬(이상 KOICA),
남상우, 김윤희, 김태영, 이근오(이상 KDI)

<연구방향 관련>

- (연구주제선정) 6월 달까지 미얀마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수출입은행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예야와디 연구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기초조사가 상당 부문 되어 있는 편라인 사업에 농업경제 부문만 보장하여 F/S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KOICA에 의견 전달*
 - (편라인강 유역 연구) KRC의 농업전문가, 농업경제학자,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을 함께 투입해 공동연구 진행하는 것에 대해 KOICA의 의견 문의
 - * 예야와디와 연구와 편라인 연구 두 가지 주제를 MDI 과제 성격으로 동시에 추진하며 F/S 신청은 편라인강 사업으로 신청

<농업분야 연구주제 선정> (참석자 전원)

- (KOICA 문상원 부소장) 편라인 사업 연구는 우선 MDI의 성격과 맞느냐는 의문점이 있고 과연 이런 연구를 MDI가 진행하게 되었을 때, 수원국이 좋아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 그래서 MDI의 이름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KRC와 수은에서 별도의 용역을 받아 추진하는 것을 제안.
- (남상우 PM) KDI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보다 정책연구에 치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연구는 Post-flood landslide recovery의 일환으로 과거 Development Partner들이 진행했던 사업과는 달리 어떠한

모형의 제시라는 측면이 강함. 더불어 아직 비교대상이 없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동 과제가 MDI의 첫 사업으로 적합하지가 않다는 의견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움

- **(KOICA 문상원 부소장)** 만약 편라인강 사업이 나라 전체의 재해예방, 보건력 증진 등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환의 사업으로 접근을 한다면 MDI의 성격과 일치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접근은 MDI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재해복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연구주제는 네덜란드, 월드뱅크, UNDP 등 다른 기관들에서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움.
- **(남상우 PM)** 동 연구주제는 ODA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다른 donor들이 하는 사업의 내용하고는 차별화된 사업임을 강조.
- **(KOICA 문상원 부소장)** 본 연구가 시범적인 사업의 모형인건지,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세익 원장님과 남상우 원장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남상우 PM)** 단순히 정책이슈에만 연구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로 흘러갈 우려가 있어 에야와디 또는 편라인 사업진행 등과 같은 구체화 된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연구주제를 선정하였음. 본 주제는 예비타당성적인 성격 + 정책 +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잘 조화된 일종의 모형을 제시한 거임.
- **(KOICA 문상원 부소장)** 에야와디 델타는 미얀마 농업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편라인 지역을 에야와디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임. 더군다나 아직 신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연구주제 선정은 향후 MDI의 status나 business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함. 편라인 사업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MDI연구가 아니라 별개의 연구로 진행하기를 재차 요청.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MDI가 진행하는 첫 번째 연구과제로서 너무 site-specific한 주제는 MDI의 성격상 또는 첫 번째 과제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

- **(KOICA 문상원 부소장)** 일반적으로 선 연구 진행 → 연구주체의 정책화 →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도출 → EDCF차관 또는 KOICA 사업으로 진행을 연계하는게 올바른 순서인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먼저 제시가 되고, 상위 정책이 후속 작업으로 나오는 등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 **(남상우 PM)** 본 연구가 프로젝트 페이지에 그친다면 적합하지가 않겠지만, 이 연구가 미얀마 농업 발전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줘 다른 donor들이나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얘기가 될 수 있다면 Project-specific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 **(KOICA 문상원 부소장)** 앞서 언급했듯이 정책이 먼저 나오고 프로젝트가 나오는게 순서인데, 그 반대 순서로 진행했을 경우 제대로 된 정책이 도출되는 게 어려울 거 같다는 게 KOICA의 의견임. 편라인 사업 연구가 큰 상위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거라면 MDI 성격상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경지정리 솔루션과 같은 미시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려 표명
- **(남상우 PM)** 이 연구는 기계화, 기술, 농업 금융 등 농업 발전의 중요한 이슈들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Available한 정책의 옵션들 중 구체적으로 사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일반적인 정책연구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 더불어 KDI 초창기 때도 철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어 본 연구가 MDI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 사업의 feasibility만 따지는 것보다 MDI의 mandate를 충족시키면서도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본 연구 진행시 주민들의 이익이 뭔지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되는 프로젝트로 발전되길 희망함.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현재 편라인장은 토목부분만 자세히 다뤄져 있고, 농경제의 시각이(i.e.농민들의 소득 증진) 부족함. 즉 농민들의 소득 증진과 같은 농경제의 perspective를 보강해 F/S 신청 전 단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여 수출입은행에게 전달하면 미얀마 정부와의 협의가 용이하리라 생각함.

- **(김혜원 부소장)** 수원국에서 전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편라인 유역을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함.
- **(수출입은행 손승호 소장)** 수출입은행에서 몇마디만 의견을 전달하자면 첫째, 에야와디 전체의 마스터플랜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기 전이라도 중간중간에 협의가 되어 단위 사업이 발굴이 잘 되어 EDCF차관으로 까지 연계하게 되기를 희망함. 둘째, 농업분야 차관신청은 기존에 진행된 선례를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금일 논의된 편라인 사업은 상업지구, 도시개발 등 여타 상업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 시료됨. 또한 수출입은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의 개연성, 한국 ODA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기존 농업 프로젝트 보다는 우수하다는 의견을 표명
 - * 농업, 보건, 의료, 교육은 통상적으로 무상원조로 진행
- **(KOICA 문상원 부소장)** 수원국의 우선순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싱크탱크 본연의 목적과 동떨어지게 보이는 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MDI라는 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스러움. 만약에 미얀마 정부에서 해당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제시한다면 KOICA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음. 그러나 가능하면 상위적인 정책개념이나 방향을 먼저 잡아주었으면 하는게 KOICA의 희망사항임.
- **(남상우 PM)** 그동안 상위적인 개념의 정책연구는 무수히 많았는데 구체화된 하위의 연구가 없었다는 부분이 미얀마 정부의 생각이었음. 일례로 상무부에서 수출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는데, 상위적인 개념 하위 단계의 구체화된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례도 있었으며, NLD 관계자들도 농업기술을 조속히 발전시켜 수출로 연결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상위적인 정책 틀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음.
- **(KOICA 문상원 부소장)** 편라인 강 사업이 양곤의 도시농업발전, 가치사슬의 증대 등 큰 틀의 정책하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면 KOICA입장에서도 환영임. 즉 상위의 정책개발 개념과 그 하위의 개념이 같이 수립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 하위의 구체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상위의 정책개발 계획 개념도 같이 수립해주기를 희망함*.
 - *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신정부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게 급선무이고 하위의 구체화된 프로젝트를 진행시에는 상위의 큰 정책 틀

도 반드시 제시를 해주어야 함을 재차 강조.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부소장께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함.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첫 번째 메인 프로젝트로 미얀마 정부의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제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실용적인 차원의 아이디어를 편라인에서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KOICA 문상원 부소장) 거듭 말씀 드린 부분의 예시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농업정책이라는 큰 틀 하에 “인구가 늘어나는 양곤의 사정을 감안하여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 그리고 도시농업정책의 차원에서 편라인 강 사업, RPC, 도매시장,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런식으로 접근을 해주기를 희망.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도출이 되었다면, 큰 틀도 같이 잡아준다면 KOICA의 입장에서도 대환영임.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편라인 강 사업 목적이 도시 근교 농업을 농민 소득증진 방안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연구 진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MDI의 이름으로 하나는 상대적으로 긴 과제로 진행하고 하나는 단기과제로 진행해도 무방한 거 같음.

③ 농업축산관개부 사무차관 Tin Htut 면담

일 시: 2016.5.04(수), 11:00-12:30

장 소: Tin Htut 농업관개부 사무차관실

참석자: Tin Htut(농업관개부 사무차관), 오세익(前 농촌경제연구원장), 이근오 (KDI), 오영인(한국농어촌공사), 문상원, 배도찬(이상 KOICA)

<MDI설립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 MDI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신청권 출범 이후 MDI 설립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 농업축산관개부 차관은 MDI의 현 진행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
 - MDI가 NGO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 기울여야 함
- MDI는 반드시 정부싱크탱크로서 기능을 해야함
- MDI사업 관계자 모두 MDI가 MOPF산하로 소속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 진행
- 홈페이지,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조속히 만들어 MDI 홍보
- 설립초기에는 MDI가 거시경제 및 금융관련 주제 이외의 주제도(농업)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농업부문 주제는 향후 미국의 IFPRI와 같은 연구소를 5~10년 안에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연구수행

<농업분야 공동연구 주제 선정>

- 농업축산관개부는 농업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문서가 절실한 상황이며, 가칭 미얀마 농업비전 2030과 같은 포괄적/종합적/중장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
 - 단편적으로 미얀마의 농업주제들을 다룬 보고서들은 무수하나 미얀마 농업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는 없는 상황
 - MOPF의 NCDP(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작성된 보고서 작성 요청
 - 농업정책은 투자정책, 비자정책 등 여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농업비전 2030과 같은 보고서 작성시 해당 부문을 포함
- 한국이 미얀마 농업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진행 희망 시 한국에게 해당 주제 부여*
 - **(절차)** 한국측에서 연구진행을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주면 농업축산관개부에서 과련 TF를 구성하도록 조치
 - **(공문포함내용)** 미얀마 측에 공동연구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내용 포함
 - * 본 주제는 First-Come First-Served(선착순)방식으로 할당할 계획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는 미얀마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국가별 Country Strategy를 요청할 계획이며, KOICA에서도 조속히 작성해주길 바람
 - 국제기구들이나 기타 국가에서 진행중인 주제들과 겹치지 않게 작성 요청
- 연구진행방안 및 보고서에 포함될 주제들에 대해 설명
 - 거시적인 정책방향 설정 후 순차적으로 정책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할 및, 액션플랜, 정책집행방안, 재원마련 방안, Flow Chart등을 작성할 계획

- (포함주제) 농업생산성 증대, Extension, 농업금융, 농업인력개발, 수확 후 관리, 법제도, 축산, 유통, 수산업 등
- (향후계획) 내부논의 → 컨셉 노트 작성 → 공동연구위원회 구성 요청
공문 발송 → 미얀마 측 연구진 선정 → 공동연구 진행 순으로 진행

<미얀마 협동조합 및 금융섹터>

- 미얀마 협동조합은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문이 월등히 우월함을 강조
 - 비협조적인 태도, 과도한 자기 PR, “All talk and no action”이 현존하는 미얀마 협동조합들의 특징
- 미얀마의 금융부문은 금융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제기능을 못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우려 표명
 - 특히 기이한 대출조건들을 달고 있는 농업개발은행들로 인해 농민들이 금융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

④ KDI-수출입은행-농어촌공사 면담

일 시: 2016.5.05(목), 16:00-17:30
장 소: 미얀마 수출입은행 사무소
참석자: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오세익(前 농촌경제연구원장), 이근오(KDI), 오영인(한국농어촌공사)

<농업축산관개부 차관 Tin Htut와 면담내용 공유>

- 농업축산관개부 PS Tin Htut이 농업분야에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에 버금가는 농업정책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하였으며 편라인 강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MDI사업과는 별개로 진행하기로 결정

<FS 절차 및 편라인 농업 종합개발사업 관련>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편라인 강 농업종합개발에 관한 F/S 공문 접수 확인 여부 및 미얀마 F/S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 (수출입은행 손승호 소장) 편라인 강 사업에 관해서는 작년에 F/S요청을 받았음. 그러나 F/S지원은 반드시 본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며 작년에 받은 편라인 농업종합개발 사업 F/S공문은 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미얀마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음. F/S절차는 MNPED 각 부처에서 요청을 받은 후 ODA Committee(Working Committee, Central Committee)를 통과한 후 수출입은행에 요청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F/S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앞서 말한 Working Committee와 Central Committee를 통과하였고 이는 미얀마 정부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지 문의
- (수출입은행 손승호 소장) 반드시 그런건 아님. 미얀마가 보낸 F/S요청 공문은 본 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출입은행에서는 본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F/S만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음.
- (농어촌공사 오영인 주재대표) 원칙적으로는 수원국에서 F/S를 다 진행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관신청을 해야하나 F/S를 수행할 역량이 안되는 미얀마 같은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Grant성격으로 본사업 진행을 전제로 한 F/S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미얀마에서 F/S요청을 한 편라인 강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Working Committee와 Central Committee를 거치지 않은 F/S만을 지원해달라는 요청.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음. 농업관개부에서 MNPED에 요청 후 각 Working Committee, Central Committee들을 통과하면 차관을 위한 F/S요청이 된 걸로 생각을 하였음.
- (수출입은행 손승호 소장) 편라인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F/S요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해야함

⑤ MDI CEO Dr Zaw Oo 면담

일 시: 2016.5.5(목), 18:00-20:00

장 소: 양곤 노보텔 호텔 회의장

참석자: 오세익(前 농촌경제연구원장), 남상우, 김윤희, 이근오(KDI), Dr Zaw Oo(MDI CEO)

<농업주제 관련>

- (남상우 PM) KOICA가 진행하는 에야와디 델타지역 개발 및 수출입은행-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빠떼인 지역개발 사업을 소개함. 동 2개 주제를 MDI 연구주제와 연계할 방안 모색할 수 있음.
- (Dr. Zaw Oo) MDRI는 Local Value Chain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MDI 연구와 연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Dr. Zaw Oo) (농업기계화 관련) 농업기계화를 위해서는 농기계 렌탈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를 마이크로파이낸싱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노동비 증가 및 농촌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기계화는 필수적임.
- (남상우 PM) 소규모 농업기계 제조/조립 산업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현재 미얀마에는 로컬 농기계제조업체가 부재함. 이에 한중일 농업기계생산업체와 JV를 만들어서 내수생산을 할 것을 제안함. 이는 기술 전수와 역량강화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 (Dr. Zaw Oo) 미얀마에 유통되는 중국산 기계들은 resilient하지 않아서, 현지에서 내수생산할 수요가 있음.
- (Dr. Zaw Oo) 에야와디 델타지역에는 강이 많으나, 동 지역 농지에는 빗물만을 사용하며, 강물을 이용한 관개시설은 열악함.
- Post-harvest management: 습하고 건조한 날씨가 반복됨에 따라 쌀에 균열이 생겨서 부서짐. 미얀마 쌀 수출가격은 주변국 쌀가격 대비 50% 수준임.
 - 현재 농업부 장관은 에야와디 델타지역은 쌀생산에 집중할 것임.

<미얀마 고무산업 관련>

- 미얀마에는 고무 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제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음. (MDRI-CESD에서는 동 주제로 연구주제 진행 중)

- 미얀마 고무산업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며, 내수 고무산업이 발전하면 태국에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복귀할 수 있을 것임.
- 미얀마정부는 쌀생산량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지내 쌀 이외 기타작물 재배시, 허가가 필요함. 정부는 그동안 쌀생산지원에 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타작물재배는 장려하고 있지 않음.

<MDI 설립 진행관련>

- 현재 전환시점에서 MDI의 활동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아웅산수치에게 MDI 필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아웅산수지는 peace bulding에 집중하며 관련 컨퍼런스들을 준비중임.
- 신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신정부가 reality check 및 priority를 정하는 시간이 요구됨. 이 기간동안, sub-natioal level(regional level)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함. (TMT는 만달레이 지방정부와 리서치 진행 중임. 조우는 몬 스테이트와 리서치 중 (rubber etc.))

⑥ 국제미작연구소(IRRI) 신종수 소장 면담

일 시: 2016.5.10(화), 14:30-16:00

장 소: 국제미작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신종수(IRRI 소장), 오세익(前 농촌경제연구원장), 이근오(KDI), 최동영, 오영인(한국농어촌공사), 배도찬(KOICA

<국제미작연구소 소개>

- 국제미작연구소는 1960년 록펠러 재단에 의해 설립된 국제농업연구소이며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음
-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부룬디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총 직원은 약 1400명 정도
- 빈곤퇴치, 기아박멸,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증진, 지속가능한 쌀농사 기술의 확립 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전세계의 기부를 통해 운영

- 한국은 예산의 약 1.7%정도를 기부
- 녹색혁명*의 시초라 불리는 통일벼를 개발, 또한 쌀에 관련된 서적, 품종, 유전자원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필요한 나라들에게 보급
 - * 1966년도 1개의 자포니카와 2개의 인디카를 삼원교배함으로써 병해충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30%도 늘어난 통일벼를 개발하여 IR8이라는 품종을 개발하였고 이는 녹색혁명의 시초가 됨

<미얀마 농업 관련 의견>

- 각 나라 원조기관들의 농업관련 사전조사 방법에 대해 지적
 - 관계부처 면담, 현지답사내용 위주로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얀마 농업 관련 유용한 보고서가 드문 실정
- 향후 미얀마 농업개발과 관련된 조사수행시 최신과학기술 및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해야함을 강조
 - Climate Zone을 우선적으로 파악 후 각 기후대에 맞는 농업 및 토지개발 방안 모색
 - 유전공학을 통해 미얀마에 맞는 쌀 품종 개발
 - 위성 추적을 통해 쌀 재배면적 변화와 수자원 변화 등을 트래킹
 - 모바일 기반 IT를 통한 농업 DB 구축 및 수확량 예측
 - 염해도 샘플링, Drought mapping, Cropping Pattern mapping과 같은 과학적 조사 수행
- 전세계 쌀시장은 현재 포화상태이며 미얀마는 쌀이외의 작물 생산에도 포커스를 두어야 함

<MDI 관련 국제사회 의견>

- MDI에 대한 관심은 신정부 출범이후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현 MDI의 CEO Zaw Oo는 신정부에서 역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MDI가 전정부의 산유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공동연구 진행 이전에 내부조직을 먼저 꾸리는게 급선무라는 국제사회의 의견
- 세계적인 투자가인 George Soros가 설립한 Open Society 재단에서 미얀마 신정부를 위한 경제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 MDI가 반드시 MOPF 산하로 소속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해야함을 강조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동향>

- 2016년 5월 2일에 새로 임명된 농업축산관개부 차관 Tun Win은 필리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Myanmar Rice Federation, 국제미작연구소 등의 경력을 보유한 농업전문가임
- Tun Win차관은 미얀마의 농업비전과 관련 현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행정차관인 Tin Htut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마찰이 예상됨

⑦ 선진사료 이병하 대표 면담

일 시: 2016.5.10(화), 16:30-17:30

장 소: Yangon Hotel

참석자: 이병하(선진사료), 오세익(前 농촌경제연구원장), 이근오(KDI), 오영인(한국농어촌공사), 배도찬(KOICA)

<선진사료 소개>

- 선진은 축산 및 사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며 미얀마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에 이어 4번째 해외 사료 사업 진출국가
 - 필리핀은 약 20년 전, 베트남은 12년 전, 중국은 9년 전, 미얀마는 제작년에 시작
- 2014년 11월 Bago에 사료공장 완공 이후 2015년 10월에 누적생산량 1만톤 달성
- 선진은 사료사업 이외에도 종계사업에도 진출, 지난 6월 첫 Day-old-chick 출하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축산업분야에 진출

<미얀마 축산업 문제점>

- (축산통계 관련) 미얀마와 관련된 축산 관련 통계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통계자료도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

- FAO에서 발표한 미얀마 돼지 수는 1000만마리로 집계되었는데 실제 돼지 수는 300만마리도 되지 않을거라 예상
 - * 미얀마는 돼지사료 생산량이 1000톤 이하인데 1000만마리의 돼지가 존재한다는 거는 불가능
- 정부에서 발표한 낙농통계는 4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낙농에 근접한 수치이며 미얀마 현실상 불가능한 수치임. 실제로는 4만톤도 되지 않을거라 예상.
- **(토지법 개정)** 외국인들도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토지법 개정이 필요
 - 특히 Livestock단지 조성 후 지정 지역에서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토지법 개정이 절실
- **(자국 산업보호)** 미얀마는 자국 산업보호에 대한 개념이 미흡한 상황이며 세법체계 개정 후 관세나 보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

<구제역 및 조류독감>

- 열대지방의 특성상 조류독감 발병 빈도수가 많을거라 예상하지만 실제 조류독감 발병율은 적은 실정
- 오히려 조류독감보다 구제역 발생 빈도수가 많으며 돼지는 구제역보다 Porsine Respiratory Syndrome(돼지호흡기 복합감염증)으로 폐사하는 비율이 높음

<기타>

- 통상 경제발전 이후 육류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미얀마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육류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을거라 예상
 - 한국 젊은층이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것처럼 미얀마의 육류소비에 대한 현지 의견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음
- 미얀마,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축산사업 진출은 로컬 강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어려울 거라 예상
 - 필리핀에서 KFC가 현지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는 사례 제시
- 현대축산은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부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 닭, 돼지는 거의 불가능하며 오리나 염소 정도는 가능하리라 판단됨

⑧ USAID Leslie Marbury 농업전문가 면담

일 시: 2016.5.11(화), 14:00-15:00

장 소: Fuji Cafe

참석자: Leslie Marbury(USAID), 오세익(前 농촌경제연구원장), 이근오(KDI)

<공동연구 주제>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농업축산관개부 차관인 Tin Htut는 한국측에 미얀마 농업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NCDP에 버금가는 보고서를 작성요청. 그러나 MDI CEO인 Dr. Zaw Oo에 의하면 USAID가 해당 주제를 이미 선정했다고 들어 미팅을 요청함. USAID에서 작성한 “From Rice Bowl to Food Basket”은 훌륭한 보고서이나 디테일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본 보고서 이외에 미얀마 농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연구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음.
- **(USAID Leslie Marbury)** 5월 12일 본보고서와 관련해 세계은행, 미시간 주립대, Natahan Associates와 면담 후 Agricultural Sector Working Group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USAID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Sequencing과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나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예산제약 때문에 세부적인 연구는 어려운 실정임. 한국측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우선 USAID에서 “From Rice Bowl to Food Basket”을 follow-up하는 성격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음. USAID에서 진행계획이 없다면 한국 측에서 진행하기를 희망하나 USAID와의 협업 여지는 있으리라 판단됨. 농업축산관개부 Tin Htut 차관에게 한국측에서 연구진행의사를 밝히면 다음주 정도쯤에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을거라 예상

- **(USAID Leslie Marbury)** Tin Htut 사무차관은 원조기관 관계자들에게 미얀마의 농업정책의 부진에 대해 얘기하는 경향이 있음. 지난주에도 USAID 관계자에게 농업연구관련 싱크탱크 수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음. 현지 측과의 공동연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USAID는 한국측의 연구계획에 방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Agricultural Sector Working Group과의 미팅에서 농업관련 주요내용이 있으면 공유해주기를 부탁함
- **(USAID Leslie Marbury)** 주요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음

<별첨 1> 미얀마 경지정리 및 농업기계훈련사업(5월 4일 답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미얀마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농기계 훈련 사업
(The Project for Farmland Consolidation and Agricultural Machinery Training for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Myanmar)
- 사업지역 : 네피도시 떼지공 마을(경지정리), 예진지구(훈련센터)
- 사업기간 : 2014. 1 ~ 2015. 12 (24개월)
- 용역비 : 2,087백만원 (경지정리 공사비 포함)
- 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미얀마 농업관개부
- 수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PMC 용역)

2. 사업내용

- 경지정리 설계 및 시공감리 (100ha)
- 농기계훈련
 - 농업기계훈련센터 건립 지원, 농기계 및 훈련기가재 구매 지원
 - 훈련교재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농기계훈련 교관양성 및 현지 교육
- 전문가 파견 : PM/관개, 설계, 측량, 토양, 물관리, 농기계 등 51.5인월
- 역량강화
 - 농민 농기계 훈련, 농민조직 결성 및 물관리 및 유지관리기법 전수
 - 미얀마 경지정리 설계매뉴얼 개발 및 공무원 훈련
- 국내초청연수 : 11인, 10일간 (2014.10.6. ~ 10.15.)
- 기자재 지원 : 측량 및 사업관리 차량, 사무기기, 측량용 토탈스테이션

3. 추진현황

- 경지정리 착수조사, 측량 및 세부설계 완료 ('14.1~11월)
- 농기계훈련분야 착수조사 완료 ('14.8월) 및 교재/훈련과정 개발
- 경지정리공사 시행 및 완료 ('14.12~'15.5월)
- 농기계훈련센터 건립사업 2월 공정률 약 15% (2016년 9월 완공예정)

<별첨 2> 미얀마 편라잉강 농업종합개발사업 개요(5월 6일 현지답사)

1. 추진배경

- 미얀마 농업관개부에서는 테인세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편라잉강 준설사업을 진행 중이며,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미얀마 농업관개부 차관 초청 “에야와디델타개발 워크숍(14.8.22)”에서 미얀마측은 편라잉강 개발사업 개요를 발표, 공사에 기술지원 요청 (14.9.22)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편라잉강(에야와디강 지류로 양곤 인접하여 흘라잉강에 합류)
- 주요사업내용

(1) 편라잉강 개요

- ① 편라잉강은 수상운송로 기능과 우기 시 관개영역의 배수채널 기능을 수행함
- ② 총연장 54.5km이나, 하상퇴적으로 인하여 현재 약16km만 수상운송이 가능함

(2) 편라잉강 준설 및 개발사업 내용

- ① 편라잉강 하상퇴적층(평균 4.0~5.0m)에 대한 준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
- ② 배수갑문(상하류 2개소)을 포함하여 편라잉강 인근 농업종합개발을 시행할 계획임
 - 농업용수 관개배수 기능강화 및 수상운송로 확보
 -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확보 및 해수침투 방지
 - 농촌개발을 위한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배수갑문과 연계한 레크레이션 및 컨벤션, 전시 센터 조성
- ③ 에야와디 델타지구 농업종합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추진

3. 추진현황

- 편라잉강 농업종합개발사업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2014년 11월)
- ODA(Loan)방식의 사업추진방안 협의 및 실무지원 (진행 중)
- 미얀마 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시 편라잉강 배수갑문사업 기술지원 요청 (15.8월)
- 타당성조사 시행중이며 완료 후, 차관사업으로 추진(16.5월)
 - 네덜란드와 농어촌공사 공동시행 : 수자원개발, 배수갑문 기본설계, 농업종합개발

<별첨 3> 미얀마 에야와디델타 농업마스터플랜 사업 개요(5월 9일 현지답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미얀마 에야와디델타지역 농업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The Project for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Agriculture and Irrigation Development Master Plan (CAIDMP) in the Ayeyarwady Delta Region, Myanmar)
- 사업지역 : 에야와디강 하류 델타지역
- 사업기간 : 미정 (사업착수부터 약 2~3년간)
- 용역비 : 4,500백만원
- 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미얀마농업관개부

2. 사업내용

- 마스터플랜 수립
 - 대상지구 현황 조사분석
 - 농업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의 내용 및 방향 정립
 - 농업종합개발의 시행체계 수립
- 시범사업의 세부설계
- 전문가파견 : 125인/월 (12분야)
- 기자재지원 : 측량장비, 사업차량, 수위·기상·염도 관측 시스템
- 워크숍개최 및 초청연수

3. 추진현황

- 공사, 제안서작성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14.7월)
- 미얀마 농업관개부 차관초청 세미나 개최('14.8월)
- 대통령실(3번장관) 사업승인 및 KOICA 공식요청 ('14.10월)
- KOICA,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및 사전조사 시행(2016년 2-3월)